

조문 정국에 늦춰진 개각...이달 넘길 수도

MB 탕평개각으로 'DJ 유지' 답나

(동서 화합)

김대중 전 대통령의 '동서화합'의 유지가 다음 달로 늦춰진 내각과 청와대 참모진 개편에 반영될 것인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이 호남 인맥의 중용 등을 통해 '탕평 개각'에 나선다면 김 전 대통령 서거를 계기로 조성된 국민 통합의 여운은 시대적 흐름으로 자리 잡을 전망이다.

20일 여권 고위 관계자에 따르면 당초 이르던 이달 말로 예정됐던 개각 및 청와대 참모진 개편은 김대중 전 대통령의 서거에 따라 다음 달로 늦춰진 상태다.

김 전 대통령의 장례 일정과 국민적인 추모 분위기 등을 감안하면 현실적으로 이달 내에 개각 및 청와대 참모진 개편이 이뤄지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청와대와 여권은 김 전 대통령의 서거에 대한 애도 모드를 유지하는 한편 민주당 등 진보진영의

호남 인맥 중용...지역·이념 뛰어넘는 통합 돼야

편중인사 땀 야권·호남민 반발 등 후폭풍 직면

음직함을 지켜보며 개각 등 인적 개편의 내용과 시기 등을 조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이번 개각과 청와대 참모진 개편은 평생을 동서화합에 노력해 왔던 김 전 대통령 서거 이후 이뤄진다는 점에서 상당한 변화가 예상된다.

즉, 이번 인적쇄신에 이 대통령이 최근 강조하고 있는 '중도실용', '서민 중심'의 국정운영기조와 함께 김 전 대통령의 유지인 '동서화합'이 담기면서 호남 인맥의 중용이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이 같은 탕평 개각이 현실화된다면 진보 진영을 대표하는 김 전 대통령

의 동서화합 유지를 보수진영의 이 대통령이 실현하면서 이념과 지역을 뛰어넘는 국민 통합의 계기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를 반영하듯, 청와대 관계자는 "호남 인맥의 중용을 위해 신경 쓰고 있지만 인재풀이 그다지 많지 않아 고민"이라며 "김 전 대통령의 서거에 따라 개각에 상당한 신중을 기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 대통령이 중도와 실용을 명분삼아 과거와 별다른 차이가 없는 인적개편에 나선다면 민주당 등 야권의 반발은 물론 사회적 갈등이 고조되는 등 거센 후폭풍에 직면할 전망이다.

실제로 김 전 대통령 서거 정국이 마무리되고 개각이 이뤄지는 9월에는 정기 국회가 열리는 데다 10월 재보선을 앞두고 있어 호남 인맥 중용을 통한 국민 통합의 메시지가 담기지 않은 인적 개편이 이뤄질 경우 정국 혼란이 가중될 전망이다.

당장, 지난 3개월 사이에 두 명의 전직 대통령을 잃은 민주당 등 진보진영에서는 여권에 대한 총공세에 나설 가능성이 높을데다 그동안 호남 인맥의 소외를 지켜보던 호남 민심의 반발 등도 배제할 수 없다.

민주당 관계자는 "김 전 대통령의 서거는 국민 통합의 절대적 계기라는 점에서 이명박 정부에게는 다시 수 없는 기회"라며 "여권이 이번 개각 등을 통해 국민통합을 실현하고 진솔한 자세로 대화와 타협을 통해 여야 관계를 복원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



시·도 지사, 지역 국회의원 합동 분향 20일 오후 박광대 광주시장, 박준영 전남지사, 민주당 박주선 최고위원 등 광주·전남지역 단체장과 국회의원들이 광주·전남 동구 금남로 옛 전남도청에 마련된 광주·전남 시도민 합동 분향소를 찾아 조문하고 있다. /나명주기자 mjna@

"유머 넘치고 꽃과 동물 사랑한 사람"

이희호 여사 자서전 '동행'에서 본 DJ

수감 기간 동안 김대중 전 대통령은 봉합염서에 깨알같은 글씨로 편지를 써 이희호 여사에게 보냈다. 그 편지의 시작은 항상 '존경하고 사랑하는 당신에게'였다.

1963년, 동교동에 집을 마련한 김 전 대통령은 '김대중', '이희호'라고 적힌 두개의 문패를 대문에 나란히 걸었다.

이 두가지 사례는 '두 사람의 동반자적 관계'를 설명하는 상징이 되었다.

김 전 대통령의 정신적 동지였던 이희호 여사가 출간한 '동행'(2008·웅진지식하우스 펴냄·사진)에서는 김 전 대통령의 여러 모습을 만날 수 있다.

1951년 부산에서 이여사를 처음 만나 김 전대통령은 1962년 청춘을 한다.

"나는 가진 것이라고는 아무 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나에게겐 원

대한 꿈이 있습니다. 민주주의를 꽃피우고 국민들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주는 것입니다. 나는 당신이 필요합니다. 나와 아이들을 돌봐 주기를 바랍니다. 당신을 사랑합니다."라는 말과 함께.

"꿈이 큰 자의 밑거름이 되고 자 결심하고" 결혼을 한 이여사는 김 전대통령이 육고를 치를 때는 육바라지로, 미국 망명 때는 든든한 조력자로, 야당 총재 때는 조언자로 정치 역정을 함께했다.

김 전대통령이 교도소에서 보낸 생일 축하 카드에는 이여사가 가장 아끼는 선물이다. 카드에는 '축생신, 당신의 생일을 축하하며 하느님께 당신이 지금까지 겪은 고난과 헌신에 비추어 특별한 축복을 주시도록 간절히 기도합니다'라고 쓰여 있었다.

김 전대통령은 유머가 넘치고 꽃과 나무, 동물을 사랑하는 사람



이었다. 이여사가 넘겨져 휠체어 신세를 지자 "당신이 나를 무척 사랑하는 가 봅니다. 나를 얼마나 좋아하면 고관절까지 따라서 다치니 말아요"라며 우스갯 소리를 하기도 했다.

부부는 잠자리에 들기 전 '사랑이여' 등 노래를 1시간씩 부르며 행복한 시간을 보냈다.

그러나 김 전 대통령을 먼저 떠나보낸 이 여사는 홀로 나즈막히 노래를 부르며 남편을 그리워할 듯하다. /김미은기자 mekim@

현지 한국대사관 찾아가... 유럽 '추모 물결'

19일 유럽 각국 한국대사관 등에 마련된 김대중 전 대통령 분향소에는 한국의 민주주의 정착과 남북 간 화해에 크게 기여한 김 전 대통령의 서거에 깊은 애도를 표시하는 행렬이 이어졌다.

주영 한국대사관에 설치된 분향소에는 천영우 주영 한국대사를 비롯해 공관 직원들이 먼저 분향하고 금융기관과 기업 주재원, 교포들의 분향이 이어졌다.

주독일 한국대사관, 주프랑크푸르트 및 주뮌헨한국대사관, 주프랑스

한국대사관, 주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한국대사관, 주러 한국대사관, 주헝가리 한국대사관 등 유럽 각국 재외공관들에 설치된 분향소에도 이날 하루 외교사절과 교포 및 한국 현지법인 주재원 등의 조문이 이어졌다.

모스크바에서도 이날 오후 2시께 마사하루 고노 주러 일본 대사가 현지 공관장으로는 처음으로 분향소를 찾았으며, 조문록에 "일본 국민은 김 전 대통령이 미래 지향적 한-일 관계 구축에 노력하심을 잊지 못할 것"이라고 썼다. /연립뉴스

中 조문단, 다이빙귀 등 고위급 파견할 듯

중국은 지난 18일 서거한 김대중 전 대통령의 장례식에 고위급 조문단을 파견할 것으로 20일 알려졌다.

베이징 외교부는 중국이 김 전 대통령의 위상과 한반도 평화 및 한중 관계 발전에 기여한 공로 등을 높이 평가하고 있어 이례적으로 상당한 고위급 인사를 조문단 대표로 파견할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베이징 외교부는 조문단 대표로 적어도 전현직 국무위원 또는 장관급 인사가 파견될 가능성을 점치고 있다. /연립뉴스

이에 따라 다이빙귀 국무위원과 김 전 대통령과 친분이 두터운 방자쉬안 전 국무위원, 양제츠 외교부장, 왕자루이 공산당 대외연락부장 및 전직 장관급 인사들이 거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장례식에는 청용화 주한 중국대사를 대표로 보내는 것으로 분국 조문단을 대신했고 최규하 전 대통령의 장례식 때도 분국에서 조문단을 파견하지 않았다. /연립뉴스

Advertisement for Kim Young's university entrance exam preparation. It features the slogan '대학편입의 해법은 "김영" - www.kimyong.co.kr' and '2010년 자신의 실력을 희망대학에 딱 맞출 수 있는 절호의 기회! 대학편입 성공은 "역시, 김영"'. It also lists '광주분원 김영면입학원' and contact information.

Advertisement for Asset Korea Real Estate. It features the company logo and name '부동산 경매 전문회사 주식회사 에셋코리아' and '정비에 관한 모든 상담 062)236-3400'. It lists various real estate services and provides a detailed table of property listings with columns for location, size, price, and features.

Advertisement for Suwon Jigu Real Estate. It features the slogan '미래의 가치를 창조하는 수완 코리아랜드 공인중개사 사무소' and '수완지구 수완 롯데마트 옆'. It lists services like '패리스타워빌딩', '중앙메디컬빌딩 (분양임대)', and '뉴타운 빌딩'.

Advertisement for Daedeung Samil Real Estate. It features the slogan '대인동삼일부동산' and '모텔 목욕탕 및 각종 상가건물'. It lists services like '수완지구' and '패리스타워빌딩'.